

「2006 충남RHRD 중점사업」 워크숍 개최



한서대학교에서 지난 8월 18일부터 3일간 충남의 전략산업중 하나인 영상미디어 산업과 관련한 인적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프로젝트 사업을 마무리하는 상영회를 실시하였다.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2006 충남RHRD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12개 인적자원개발사업중 하나로서 충남의 영상미디어 전략산업분야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문화지식 사업이 21세기의 커다란 조류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사업의 중요성은 하루가 다르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은 9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영상사업의 친빙 역할을 해오며 양적으로 팽창해오고 있다.

하지만 양적팽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적 향상은 더디어져 왔으며 필름 제작방식에서 디지털 제작방식에서 전환되는 과정에서 더욱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특징은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산재되어온 애니메이션 관련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교육부재가 크게 지적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3위 제작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그 인지도는 크게 떨어지는 문화산업부분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전문 교원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 있어서 필요한 기술과 제작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습득하고 나아가 애니메이션 제작 워크샵을 통해 직접 고품질의 애니메이션 작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그 동안 필름 방식 애니메이션에서 표현되어온 기발 애니메이션의 디지털 제작방식 전환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다년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애니메이션 제작기술을 개발, 작품에 적용시키고자 '애니메이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은 3,000억원 규모의 국내시장에서 활발히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200여 개의 업체에서 곧바로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과정과 연계할 경우 보다 폭 넓은 애니메이션 교육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 교과과정으로 기대된다.